

舞踊學科 教科課程의 문제점과 과제

金 采 賢

(中央大 舞踊學科)

1. 초보적 懸案

원칙적으로 대학에서 실기인을 양성하는 현상에 대해 양론이 있는 줄로 안다. 유럽식으로 독일의 아카데미나 프랑스의 콩세르바투아르처럼 별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실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견해와 미국식으로 대학에서도 실기인을 양성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견해 가운데 우리는 미국식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근자에 한국종합예술학교 개교를 계기로 양론 사이에 시비가 일곤 하는데, 이 문제는 별도의 차원에서 거론되어야 할 줄로 안다. 여기서는 우리의 현실을 원칙으로 삼기보다는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전문인 양성의 효율성에 비추어 무용학과 교과 과정의 문제점과 과제를 지적하려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춤 예술활동의 전문인력은 거의 대부분 대학의 관련 전공학과에서 배출되고 있다. 1963년 이화여대 체육대학에 무용과가 개설되고서부터 1991년까지 24군데 대학, 5군데 전문대학에 무용학과(또는 무용과)가 정식설치되었으며, 그밖에도 체육 관련학과에 무용전공형태로 설치된 곳도 있다. 이들 학과의 6할 이상이 80년대 이후 개설되었고, 최근 일어난 사이만 해도 학과 개설 작업이 몇 군데

진행중이어서 무용 전공학과는 80년부터 지난 15년동안 급성장의 추세로 증설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과 증설 움직임으로 미루어 앞으로 춤 전문 인력 배출의 면에서 대학과 전문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된다.

춤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호전되어 가는 것파 더불어 학과 증설 현상과 전문 무용수의 공급 역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무용 관련 학과의 청사진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 개설 30년을 넘긴 이제 와서는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정도로 무용학과의 문제점, 특히 교과 과정의 문제점은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무용학의 학문적 넓이와 깊이를 묻기 전에 우선 그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거론해 본다면, 각 학과들의 현행 교과 과정이 과연 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절한지 미심쩍은 반응을 불러 일으켜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학과에서 약속이나 한듯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의 셋으로 나누는 3분법 전공 편제도 개편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해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서 지적하자면, 무용학의 학문적 영역과 방법론을 새롭게 모색해 보기도 전에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학과 운영'에서의 초보적 현안들이 무용학과의 존재 이유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용학과는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무용학과는 춤과 함수 관계에 있고, 마찬가지로 무용학과의 교과 과정도 춤의 다양한 구성요인을 염두에 두고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실험적으로 알아야 할 점은 춤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춤추는 현장으로 나타나기 마련이 되, 그 배후의 구성 인자들은 짐작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춤에서 직접 보이는 것을 근거로 춤은 무용수뿐이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간접적으로는 무용수들 매체로 춤을 짜는 안무가, 그리고 안무가를 돕는 연출진, 보다 멀게는 이 모두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있어야 하며, 그 외에도 춤을 보존하고 전파하며 평가하는 이론가나 매체 종사자도 무용수에 못지 않게 필요하다. 무용학과의 효율성은 결국 이들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는 것으로 판가름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행대학 무용 전공 교육은 날로 늘어가는 이들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며, 특히 UR 협정에 따른 교육·문화 개방은 미구에 '현 수준의' 국내 무용학과나 무용 단체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 무용학과도 개방을 앞두고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2. 시급한 專攻 編制 개편

현재 국내의 무용학과는 통상적으로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의 3분법 전공 편제로 학생을 모집하여 춤 예술에 종사할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관례에 따라 운영된다. 무용학과에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될 수 있는지 각 학과마다 분명치는 않으나, 무용수를 근간으로 하면서 안무자와 교육자, 연출가, 이론가 순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을 묵시적으로 전제한다. 대개 한 학년 30~50명의 모집정원에서 무용수와 안무가, 교육자 등 너댓 부문의 전문

인을 양성하는 일은 표면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만한 모집 인원이 이미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의 새 전공 체제로 분할되어 입학하고, 입학 기준도 춤 기량이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실기 점수에 의존하며,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도 단순 실기 수련이 단연 주도한다는 이유에서 단적으로 말해 국내의 무용학과가 무용수 이외의 그렇게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출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 생각된다. 즉, 국내 무용학과들이 춤 예술의 다양한 전문 인력을 배출해내려 하는 의욕 또는 배출해내야 한다는 당위성은 낮은 3분법 전공 편제에 의해 애당초부터 실현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춤을 추는 능력, 즉 무용수의 소양을 테스트해서 입학생을 선발해 놓고서 아무런 교육해본들 무용수 이외의 전문인력을 '다양하게' 양성해낼 수 있을까? 따라서 국내의 무용(학)과에서 서너 명의 전임 교원이 그와 같은 [무용수 전공 편제 아래서 춤의 다양한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목표 자체는 실현불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과도한 [점을 안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내 무용학과의 교과과정에서 개선될 [점이 많고 세부적으로 개선될 사항이 없지는 않되, 개선될 점의 상당 부분이 낮은 전공 편제와 다양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표 사이의 원천적인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하지 않은 채 교과 과정을 부분적으로 손질해본들 임시방편의 고식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로 나뉘어져 있다 해도 무용수 양성을 기준으로 할 뿐인 전공 편제를 갖고 여러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방침은 무용학과들에서 이를테면 복합적인 목표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교과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그 동안 무용학과 교과 과정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어온 '실기 편중, 이론 열세의 무용 교과'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잘해야 무용수 양성에나 어울릴 교과의 허점을 대변하고 있으며, 거꾸로 이론 과목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끼워넣기 아니면 구색맞

추기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어느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과에서 실기 교과와 이론 교과의 비율이 학점 시간 기준으로 무용학과에 따라 3.4 : 1 또는 1 : 1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무용실과 같은 실습장에서 하지 않는 교과를 무조건 이론 교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용학 고유 영역에 들지도 않고 춤 예술과 무관한 교과목(가령 학교보건)을 이론 교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론 교과의 열세는 생각보다 심각한 실정이며, 게다가 이론 교과 가운데 한 두 과목만 전공 필수로 개설되는 폐단은 이론 교과의 열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이론 교과목 몇 가지를 보충한다고 해도 문제 해결과는 멀어 보인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표가 전공 과정으로 엄격하게 세분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관행은 무용학과들이 애당초 '무용학'의 시각보다는 '무용 현장'의 수요를 무용수 배출로 대응한다는 일차원적 요청에 준해 개설되기 시작한 데서 기인했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론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실기 교과에서 전공 실기 교과목이 4할 가량을 차지한다는 통계치가 반증한다. 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미흡했고 춤 활동도 미약했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교과 과정이 그런대로 통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춤 창작이 훨씬 활발해지고 전문 영역이 보다 세분화된 오늘날 앞서와 같은 3분법이 낡았다고 관정받은 지도 1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용학과 내에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고 교과 운영에 적극 참조하려는 분위기는 딱 미온적인 줄로 안다.

무용수뿐만 아니라 춤 전문 인력을 다양하게 배출하려는 무용학과의 의지는 이렇듯 불합리한 전공 편제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어 온 편이며, 우리의 춤 예술이 80년대 이래 계빠른 양적 성장(공연 횟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준급의 작품 생산에서 실패한 원인도 여기서 기인한다. 더욱이 복합적인 목표가 미분화된 상황 속에서 무용학과의 교과가 운영되는 탓으로 실기 교과마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무용수 지망생들조차 충실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지

적도 갈수록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면 부실한 어정쩡한 교육이 전문인 양성을 방해하여 급기야 무용학과 배출인력이 소화되는 영역을 무용학과 스스로 제한해온 때문에 졸업생의 진로 지도에서도 부작용이 크며, 이와 같은 부작용은 특히 80년대 이후 전국에서 무용학과가 많이 늘어날수록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어떻게 보면 재학생들 모두가 피해자라고 할 만한 현행 무용학과 전공 편제는 늦은 감이 있으나 아무튼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으로 나뉜다. 첫째, 현재의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전공 편제를 춤 예술의 구성 요건과 무용학의 영역 구분을 기준으로 우선 무용수/안무/교육/이론 전공 편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둘째, 이 새로운 전공 편제를 기준으로 무용수 양성의 무용과, 안무가 양성의 무용창작과, 이론가 양성의 무용미학과 등으로 학과를 세분해서 설치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안에서 기존의 3분법에 따른 실기인 양성은 무용과의 몫으로 돌려지고, 무용교육자나 연출진의 양성은 무용창작과나 무용미학과와 몫으로 적절히 돌려질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 방안을 근간으로 해서 무용 단과대학 설립까지 상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가장 획기적인 해결책이 되겠으며,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현행 교과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방안을 찾는다면 첫번째 방안일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학문적 축적을 기한 후에 학과 분리나 단과대학 설립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첫번째 방안만 해도 현재의 무용학과 현실에서는 획기적이라 하겠는데, 현실과의 조화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무용수/안무/이론/교육과 같은 전공 편제와는 달리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의 전공 편제를 무용수 전공 편제로 수용하고 여기에 안무/이론 전공 편제를 덧붙이면서 교육자 전공은 안무/이론 전공자들에게 교적과정을 이수케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방안, 곧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안무/이론 전공의 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아무튼 지금처럼 무용수 양성의 실기교육, 안무자 양성

의 창작실습교육, 이론가 양성의 인문예술적 교육, 교육자 양성의 사범 교육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무용학도는 이 모든 교육을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여야 하는 지나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수박 겉핥기의 전문인이 배출되고 있다.

3. 現實과 學問性的 조화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행 전공 편제의 수술 없이 교과 과정 개편만 거론한다면, 무용학과는 퇴보하거나 정체하기 마련이고 설령 발전이 있다 해도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믿어진다. 그러므로 현행 교과 과정 개편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전공 편제의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전공 편제 개편을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그나마 가시적인 효과가 보장될 듯하다.

에당초 무용학과가 개설될 적에 전공 편제가 무용수 양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그대로 굳어져 온 사실은 춤 구성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학과개설을 추진한 때문이라 여겨진다. 우리나라 춤이 있고 그에 더해 해외에서 유입된 춤이 있으므로 각자가 안무하고 출수 있는 춤의 영역에 따라 전공을 나눈 방식은 현상적으로 춤 제작에 동원할 무용수를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준해 이루어졌을 뿐, 춤 구성 요인이나 춤의 학문적 영역에 준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어느 무용단이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를테면 무용수)과 무용학과가 필요로 하는 것(이를테면 아카데미한 전문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함으로써, 대학에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춤의 아카데미적 예술성을 얼마간 조성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오죽하면 대학의 무용학과는 또 다른 형태의 靑靑 무용학원파 다름없다고 했겠는가. 그래서 무용수 지망생이 난해한 무용미학 과목을 어느 무용학과에서든 거의 필수로 수강함으로써 노력을 헛되이 기울여야 하고 무용학과에서 원서 강의 한번 거치지 않은 채(그나마 원서 강의를 개설되지 않은 대학도 있고, 한 두 강좌 개설되어어도 부실하기 일쑤인 줄 안다.

이론가를 지망하러니 기초가 허약해 중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지금도 빈발하고 있다.

춤의 학문적 연구가 빈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원장’이 ‘학문’보다 우세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대학에 무용학과가 없었던 과거의 일일 뿐, 오늘날에도 그러리라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신생 학문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학문에 비해 학문적 연구가 적었을지 몰라도 춤 예술 자체만은 最古이다. 그런데 가장 오랜 예술이 신생의 학문 분야를 탄생시킨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춤의 본질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고, 춤의 학문적 방법론이나 대상 영역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말도 된다. 따라서 춤의 본질상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없다기보다 춤의 성격이 학문적 대상으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희소했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런저런 헨디캡을 딛고 어쨌든 오늘날 춤이 학문적 영역으로 수렴되고 있는 사실은 뉴욕 링컨 센터나 파리 퐁피두 센터 도서관의 댄스 컬렉션을 한번 살펴 보는 것만으로도 족할 듯싶다.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일천한 데에다 우리의 경우 무용과 체육의 분화가 아직도 진행중에 있어 무용학의 지포나 방법론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태다. 1991년 현재 전문대를 제외한 전국 24개 대학의 무용학과 가운데 소속 단과대학이 체육대학 또는 예체능대학 또는 예체능학부인 곳이 14군데, 예술대학인 곳이 5군데인 통계가 말해주듯이 무용의 예술적 성격을 기준으로 한 학문적 독자성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누누이 지적된 낡은 3분법 전공 편제가 모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속해온 것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학문성 미흡에 편승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무용학과 교과 과정은 무용학의 정립이라는 과제에 전문인 양성이란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인 양성의 측면에서 무용학과는 무용수·안무가·교육자·이론가·연출가를 양성하는 교과 내용을 구비해야 할 것이고, 무용학 정립이라는 과제는 무용사학·무용미학·무용인류학(사회학적 접근 포함)·동작학(표기법 포함)·

무용교육·무용심리학(치유법 포함)·무용생리학·무용연출학(안무법, 연기법 포함) 등의 분과학 체계를 무용학과들이 구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원칙으로 인정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국내 무용학과의 실태를 잠시 살펴 본다. 먼저 전문인 양성의 측면에서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와 같은 전공 실기의 단순수련이 전공실기·부전공실기·창작실기의 교과목으로 전체 실기 시수의 근 50%를 차지하며 여기에 민속무용·체조와 같은 과목을 합치면 단순 실기의 비중은 6 할 이상을 점해 전문인 양성이 확실히 무용수 양성에 기운 편협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무용원론·무용사·무용미학·예술론·연출론·무용음악론·무대미술론 등의 교과목으로 설정된 이론 시간은 실기 시수에 비해 절대열세(시수에서 이론과 실기가 균등한 무용학과가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없지는 않다.)이고 그나마 정식 교재가 빈곤하여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무용학과 졸업생들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그리고 무용학 정립의 측면은 무용학과가 개설하는 교과목을 보면 짐작이 갈 것인바, 무용학적 연구 교과에 들 만한 과목들이 한국무용사·서양무용사·외국무용사·무용미학·예술론·해부학·민속학·기능학·무용지도법·연출론 등등의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다. 무용사가 한국무용사와 서양무용사 두 강좌, 무용미학이 한 강좌에 그치는 점, 무용인류학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강좌가 민속학이라는 좁 막연한 강좌뿐인 점, 동작학과 무용심리학 강좌가 거의 개설되지 않은 점, 그리고 무용교육론·무용기능학·무용생리학 강좌가 한 두 강좌에 그치는 점, 안무법과 연기법 등의 강좌체계가 서지 않은 점 등에서 우리는 무용학과 소속 단과대학이 예술대학이든 체육대학이든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공통적으로 무용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느끼게 된다.

4. 결론을 겸한提言

무용학 정립과 다양한 전문인 양성, 이 두 과제를 위해 무용학과가 착수해야 할 일차 작업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의 낡은 전공 편제를 거두어 들이고 무용수(또는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실기)/안무/이론의 전공 편제를 갖추는 일이다. 전공 편제가 이렇게 새로이 모색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선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무용학과의 환골탈태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공 편제가 정착하려면 일정한 시일이 경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자면 우선 그에 상응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논의도 빠뜨릴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 방안으로 우리는 무용학과와 현행 교과목 가운데 무용학 정립 및 춤 예술 전문인 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덜한 교과목부터 폐강하고 연관성이 매우 강한 교과목을 신설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의 현실적 과제로 고려해볼 만하다.

우선 각 무용학과에 설치된 학교보건·체육원리·체육사·체육심리·스포츠 등의 교과목을 폐강하고 필요하다면 체육 관련 학과에서 수강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무용과 체육이 사람의 몸에서 출발한다는 초보적 사실이 무용과 체육의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용과 체육이 연계할 때 학문적으로 상호 호혜할 만한 분야가 무용생리학·심리학·동작학 등 없지는 않으므로 무용과 체육의 서로 폐쇄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과목은 무용학의 원리로 보나 무용학과의 현실적 필요(무용학과 교과 가운데 있어야 할 교과목이 너무 빠져 있다.)로 보나 다른 강좌로 대체되어야 하겠다.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아예 중·고교 교과 과정에서 무용 교과가 독립되지 못한 채 체육의 일부로 존속하는 현실에서 무용교사는 체육교사로 재직해야 하는데, 무용학과들에 서 체육 관련 교과목을 많이 개설하는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졸업후의 교직 진출을 참작한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어느 무용학과에서는 심지어 야영 및 산악훈련·골프·배드민턴·탁구·테니스·스케이트·스키 등의 강좌를 제공하여 졸업이후를 배려하는 치밀성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용학과의 고유성을 스스로 흐리고 있

는 셈이다. 그런데 무용학과에서 3할 가량의 재학생이 교직을 선택할 수 있되, 그 가운데 잘 해야 한 둘 정도가 교사로 취직하는 현실과 비교할 때 나머지 95% 이상의 학생들에게 위의 강좌들을 제공하는 일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졸업 이후 교사로 취업할 경우에 대비한다 해도 재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강좌는 무용교육학적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구상될 수 있다. 중·고교 현장에서 무용이 독립교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무용계의 빅이슈로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무용 교과가 독립될 때에 대비하여 교직 지망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해 무용계는 얼마나 고민해 보았을까? 교직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현재 무용학과에서 배우는 전통무용이나 춤 기본실기 정도의 식견으로는 중·고교 교과과정에 대응하기 부족한 편이다. 기본 교재를 공동 제작하는 일 못지 않게 우리 민속춤 등 다양한 민속춤, 무용사와 무용미학적 지식, 무용 감상 지도와 같은 강좌가 교직 희망자들을 위해 확충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학생들의 취업을 고려하는 교과 전략은 교직 취업에만 국한될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레저 활동의 무용 강좌, 그리고 뮤지컬·가무극·아동극·영상매체 분야의 춤 강좌를 무용학의 본령을 존중하면서 설치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방안은 이룰때면 현실순응적이며 나열식의 잔가지를 쳐내고 무용학의 본령을 지키면서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략이 무용 교과 개편에서 발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색채학 같은 강좌가 무대미술적 지식을 전달하는 강좌라면 명칭을 바꿔 그 교육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민속학 같은 개론식 강좌보다는 무용인류학적 접근법이 원용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닌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무용수 지망 학생들에게나 유용할 파도한 실기 시간은 안무나 이론 또는 교육 지망생들을 위해 줄여지

면서 무용학과 교과 과정에서 취약한 무용사·무용미학·동작학·연출학 분야의 강좌가 훨씬 더 증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용학과 교과 과정 개편이 순조롭게 이뤄진다 할 때, 학과의 전공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면, 이유는 어렵지 않다. 새롭게 개발되는 교과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이 최대 이유가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그 동안 무용수 양성에 경사된 교과 과정을 거친 사람들로 무용학계가 충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기적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래서 학부 무용학과의 교과과정 개편과 연계해서 손질되어야 할 것이 곧 대학원 과정의 개편이라 하겠다. 실기 교육이 거의 전무해서 학부과정에 내재하는 무용수 양성 교육위주의 폐단이 없다고 안심할지 모르겠으나, 대학원 과정의 교육 부실 또한 학부 과정의 그것에 못지 않다. 단적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뒷받침할 교과목의 부재, 형식적인 수업, 요식적 절차가 지배할 뿐인 논문 통과 등등 대학원 교육의 문제점은 결국 학부 교육의 문제점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마련이고 지금까지 그래 왔었다.

현행 무용학과 교과 과정이 현재의 춤 예술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교과 과정 개편은 전공 편제 개편과 더불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아무튼 여타 학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무용학과의 전공 편제를 바꾸고 교과목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은 그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는 학과 내부, 특히 전임 교수들의 결단에 달린 작업임에 틀림없다. 교육법 시행령에서 무용이 독립 교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도 결국은 무용학계의 진취적 노력에 의해 해결될 길이 열리리라 믿어진다. 교과 과정을 손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춤의 예술적 기반을 새롭게 닦는 효과를 내것기에 학과 내부 기득권에 연연하기보다 백년대계를 위해 양보하는 도량이 관건이 될 것이다. ▣